

캐나다 단기어학연수 파견자 결과보고서

1. 기본정보

이름	오서*	학번	
파견국가	캐나다	파견도시	밴쿠버
파견대학	랑가라컬리지	기간	2016. 8. 7(일) ~ 8. 27(토)

2. 파견대학, 수업 및 Activity

구분	결과보고(서술형)
파견대학	캐나다 밴쿠버에 위치한 랑가라컬리지는 조용하고 넓은 캠퍼스와 다른 곳에 비해 교통이 편리하다는 특징이 있다.
수업	수업은 현지 교사와 함께 회화에 쓰이는 표현들을 배우는 여러 가지 활동으로 이루어져 있다. 본격적으로 수업 이전에 레벨테스트로 반을 결정한다. 친절하고 정이 많은 교사의 반으로 배정되어 수업이 즐거웠다. 과제는 다른 반에 비해 적은 편이었고 특별한 준비물 같은 것은 없었다. 같은 반 일본, 중국, 타이완 친구들과 짝을 지어 포스터를 만들고 수업시간에 배운 표현들을 익히는 활동을 많이 한다.
Activity	점심도시락을 제외한 특별한 준비물은 필요 없고, 교통비는 전부 학교에서 지원해주기 때문에 추가비용도 발생하지 않음 1. Kayaking 2. Discover Vancouver – Cultural Assistant와 함께 밴쿠버 관광명소를 돌아다니기 3. Museum Of Vancouver 견학 4. Whistler trip –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감상할 수 있음

3. 생활전반

구분	결과보고(서술형)
날씨	밴쿠버의 여름은 한국에 비해 건조하고 자외선이 강하다. 선글라스를 항상 지참하는 현지인들을 볼 수 있다. 일교차가 심한 편이기 때문에 얇은 겉옷을 꼭 가지고 다녀야 한다.
안전	해가 진후에 길거리에서 아무 것도 볼 수 없다. 안전한 편이지만 조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숙소	딱히 불편한 것은 없었다.
식사	학교식당() 홈스테이 (V) 외부식당 (V) 기타() 첫 주에는 삼시세끼 모두 양식을 먹는 것이 부담스럽고 마음에 들지 않았지만 둘째 주부터는 적응이 되어 불편하지 않았다.
교통	학교에서 버스로 30분 이내 거리에서 지냈기 때문에 불편한 점은 없었으나 우리나라와 달리 평일보다 주말에 버스가 더 안 다닌다. 외출했다가 밤늦게 들어온 적이 있는데 버스가 금방 오지 않아 불편했다.

4. 소요경비 (본인이 지출한 총 비용)

단위:원

※ 출국 전 사전 납부 금액 외에 추가로 현지에서 본인 지출내역을 써주세요.

항목	비용	비고(간략한 비용내역 등)
개인부담금(항공료 외 기타)	1,711,200	출국 전 사전 납부
외식비	\$62.44	
간식	\$27.80	
유심	\$56.00	
공연, 전시, 기타	\$65.00	
쇼핑, 지인 선물	\$593.17	
합계	\$804.41(약690,296.40원)	현금, 카드 모두 씀

5. 출국 전 준비사항

1. 유심은 현지에서 사는 것이 좋다. 국내에서 파는 유심보다 데이터가 적지만 전화, 문자가 자유롭다.
2. 현지 날씨가 가을 같아서 겉옷을 여러 벌 챙기는 것이 좋다.
3. 라면을 몇 개 챙겨가는 것도 좋은 것 같다.
4. 체크카드 쓰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다.
5. 3주가 짧지만은 않다. 준비물을 꼼꼼히 챙겨야 한다.

6. 본인 소감 및 평가

3주라는 짧은 기간 동안 영어 실력이 일취월장하지는 않았겠지만 값진 시간이었다. 같이 수업을 들었던 같은 반 친구들이 공항에 마중 나와 주어서 캐나다에서의 마지막 날이 너무나 아쉬웠다. 비행기를 장시간 탄 적이 없어서 캐나다에 도착한 첫 주에 몸이 좋지 않았다. 컨디션이 좋지 않아서 이곳저곳 돌아다닐 기회가 적었던 것 같아 아쉽다.

7. 사진보고서 (6장 이상으로 사진 크기에 맞추어 표 변형 가능)



밴쿠버를 여기 저기 돌아다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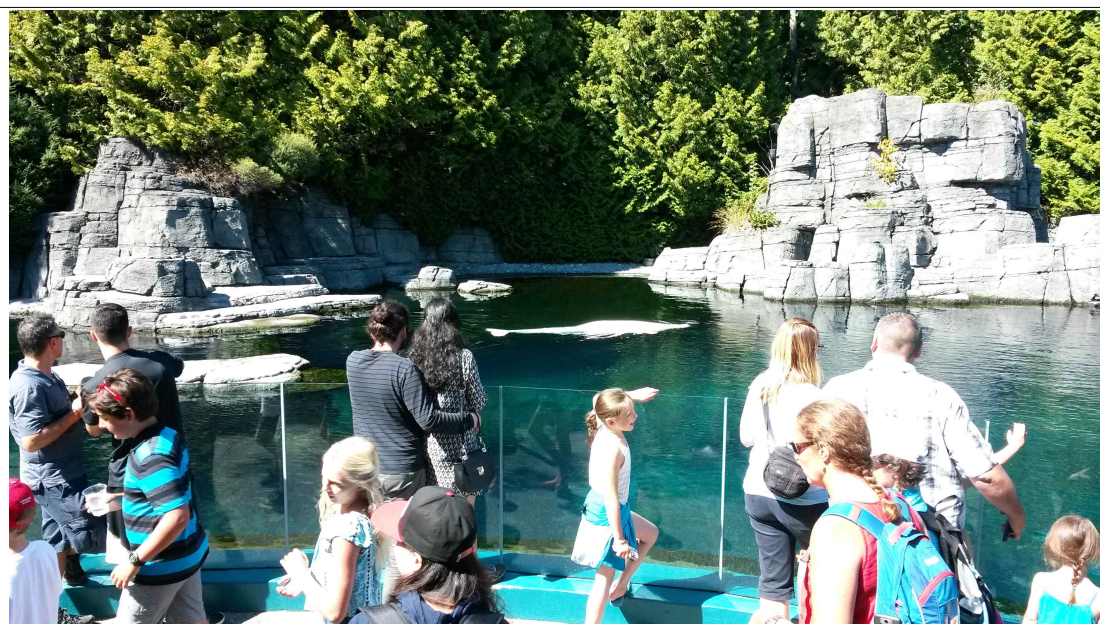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곳이다.



밴쿠버에 유일한 놀이공원이다.



밴쿠버의 역사를 알 수 있는 박물관이다.



코엑스와는 달리 아기자기한 아쿠아리움이다.



만년설이 쌓여있는 휘슬러마운틴.